

Welcome to patinex!

세계 선진 기업경영과 특허전략을 한자리에

- 제2회 국제 특허정보 컨퍼런스(PATINEX) 개최 -

최근 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점차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.

이제 기업의 생존 전략은 무엇보다 특허 중시 경영체제로 변화하고 있다.

이미 국제무대를 상대로 하는 대기업들은 특허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며

세계를 상대로 한 특허전쟁에 대비하고 있다.

이번 호에서는 기업의 특허경영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

외국의 저명한 특허 전문가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

(편집자 註)





특허청(청장 전상우)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(원장 김 열)이 주관한 『국제특허정보 컨퍼런스(PATent INformation EXpd 2006)』이 지난 11월 28일~29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삼성동 COEX 본관 장보고홀에서 개최됐다.

이번 컨퍼런스는 기업들이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지재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외 각계의 특허 전문가의 발표내용을 통해 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.

미국의 저명한 특허정보 전문가이자 CEO인 Andy Gibbs는 삼성이 휴대용 컴퓨터 분야의 R&D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경쟁사인 도사바의 특허가 삼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 사례를 발표했다.

영국 Sussex 대학의 Parimal Patel 교수는 기술 축적의 국제적인 패턴이라는 주제에서 국가의 기술혁신 시스템을 특허통계와 특허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.

그 외에도 LG전자, 일본지식재산협회, 독일 브라운호퍼사, 중국 베이징 기술연구소, 미국 Patent Cafe社 등 국내·외 지재권 전문가의 수준 높은 강연이 제공되었다.

컨퍼런스와 아울러 국내외 특허정보업체의 분석 솔루션도 전시되었다.

세계지식재산권기구(WIPO), 톰슨사이언티픽(Thomson Scientific), 도사바, 위즈도메인, 한국특허정보원 웹스 등 국내외 특허정보기관의 특허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등 관련 상품이 전시되었다.

이번 행사에 참석했던 많은 기업 연구소 및 특허 관계자들은 지재권 전략, 특허정보 활용방안, 특허분석 솔루션 등 최신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. 또한 향후 특허정보 활용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.

